



왼쪽부터 판도라, 마스터, 택시운전사



정진영, 토크쇼 진행 숨은 인문학 찾는다

tvN '동네의 사생활' 22일 첫방

배우 정진영(52)이 tvN 인문학 토크쇼 '동네의 사생활' 진행자로 나선다. tvN은 9일 '동네의 사생활' MC로 정진영과 민화기 김풍, 배우 백성현 등이 발탁됐다고 밝혔다.

이 토크쇼는 우리 동네, 즉 평범한 공간에 얽힌 인문학 이야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제작진은 "인문학 지식 전달이 주목적이지 아닌, 시청자와 공감하는 프로그램 만들 것"이라며 "인문학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동네의 사생활'은 오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40분 방송된다. /연합뉴스



헬조선 꼬집는 한국영화 줄줄이 출격 준비

'판도라' '마스터' '택시운전사' 등

"영화와 개봉하면 현 세태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 반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거울 최대 화제작으로 꼽히는 영화 '판도라'(12월 개봉)에 대해 한 영화인이 한 말이다. 영화 '연가시'를 만든 박정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판도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전을 소재로 한 재난 블록버스터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진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이 우려되자 이를 막기 위해 원전 직원과 주민, 소방대가 목숨을 바쳐 재난을 막는 내용을 그렸다. 제작비 150억원, 제작 기간 4년이 걸렸다. 김남길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재난에 맞서는 발전소 인부 역을, 김명민은 재난 앞에 놓인 젊은 대통령으로 나온다. 이 작품은 특히 재난 앞에 무능력한 대통령과 국민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판도라'의 각본을 쓰고 직접 연출한 박정우 감독은 9일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판도라'는 4년 전에 쓴 시나리오다"고 밝히며 마치 예언이라도 한 듯 영화 속 상황과 비슷한 일이 현실에 벌어진 데 대해 "반갑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일부 장면에서는 국정조작도 불사하는 '실세 총리'(이경영)가 "대통령님은 지금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박 감독은 "한국영화 속에서 대통령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등장시키지 않고 싶다는 것이 창작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며 "대통령을 멋있게 그리면 비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리면 (관객들의) 짜증을 나게 하는 인물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는 지난해 7월 촬영을 마쳤지만, 1년 넘도록 극장에 걸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원전 사고라는 민감 소재를 다뤄서 개봉이 늦춰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 감독은 "영화를 시작했을 때 과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도 "그러나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압 때문에 개봉 시기를 못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시작 효과 등 후반 작업에만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판도라' 이외에도 극장가에는 현 세태를 반영하는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 대기 중이다. 이병헌·강동원·김우빈이 출연하는 '마스터'는 범죄 오락 액션 영화지만, 권력형 비리와 정경유착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에 대한 풍자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단위의 사기 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쫓는 지능범죄수사대와 희대의 사기범, 그리고 그의 브레인이 치열한 머리싸움을 벌이는 내용으로, '감시자들'(2013)을 연출한 조의석 감독의 신작이다. 이병헌은 대정부 로비를 통해 사임을 기원하거나 희대의 사기범 진 회장 역을 맡았고 강동원이 지능범죄 수사팀장, 김우빈이 진 회장의 브레인 역을 맡았다.

사회성이 짙은 영화들은 내년이 더 많이 몰려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송강호 주연의 '택시운전사'(장훈 감독)를 비롯해 1급 군사기밀에 얽힌 군 내부 비리 사건을 파헤치는 김상경·김옥빈 주연의 '일곱비밀'(홍기선), 대한민국 최초로 3선 시정에 도전하는 서울시장 변종구와 음모가 판치는 정치 판 이야기를 다룬 '특별시민', 군 비리를 소재로 한 송강호·류승룡 주연의 '제5역' 등 소재와 장르도 다양하다. 사회적 이슈를 담은 영화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의 흥행 키워드로 '사회성'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변호인'(2013), '베터링'(2015), '내부자들'(2015), '부산행'(2016) 등이 각각 법정 드라마, 액션, 범죄영화, 재난 블록버스터라는 장르 속에 사회 현실을 꼬집는 내용을 담아 흥행에 성공했다. 영화계에서는 사회성 짙고 비판성이 강한 영화들이 유독 정권 말기에 쏟아지는 경향이 있다. 영화 홍보사 관계자는 "'화려한 휴가'(2007), '범죄와의 전쟁'(2012), '부러진 화살'(2012), '26년'(2012) 등 사회 비판적 영화들이 주로 정권 말에 개봉해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정권 말은 주로 혼란기여서 사회성 짙은 영화들이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언니들의 슬램덩크' 12월 종영

내년 1월 시즌2 제작



여성 연예인들이 꿈을 이루는 내용을 담은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언니들의 슬램덩크'가 다음 달 종영한다. KBS 예능국은 9일 "'언니들의 슬램덩크'가 시즌제 예능으로 제작되면서 오는 12월 종영하고 내년 1월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박인석 PD는 시즌2 멤버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8일 시작한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남성 연예인 중심의 예능에서 여성 리얼 버라이어티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 프로그램은 걸그룹 '인니즈' 결성 등으로 한때 화제를 모았으나 최근 시청률이 2.3%대로 추락해 맥을 못 주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날)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10 좋은아침
10	00 2016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2	05 TV소셜 (저 하늘에 태양이)(재)	00 MBC 정오뉴스 20 2016 아시아태평양 컬링 선수권대회 여자부 예선	00 SBS 12 뉴스 5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2016 중흥 S-클래스 고교동문 필포대회(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55 별별가족(재)			55 닥터 365
2	00 노래가 좋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온스터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세상발견 유레카(재) 55 닥터 365
3	00 숨터 (재) 05 제13회 KBS 영상페스티벌(재) 55 트윈생활체조(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내일은 언제나 루름	3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메카드 W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안녕 자두야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으리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베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공황 가는 길)	00 수목드라마 (쇼피망 투이)	00 드라마 스페셜 (질투의 화신)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세상에 말을 걸다)	10 해피 투게더		10 자기가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MBC 뉴스 24 45 제45회 MBC 가을맞이 가곡의 밤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재) 07:30 뽀뽀뽀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똥똥똥 유치원 1~2 08:30 울강한 소방차 레이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오징어 큐비쥬 09:15 시계마을 타기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부모 (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고영숙의 햄버그스테이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정수의 비밀 12:40 역사채널e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스콜랜드-한자왕국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출동! 슈퍼피스 14:25 직장전사, 미니특공대(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탐험대	15:20 꼬마키사 마이크 15:35 오솔 상자 15:45 코코코 다코 16:15 두디다쿵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2(재) 17:15 울강한 소방차 레이(재) 17:30 뽀뽀똥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온 개는 없다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레코문화기행 4부 보헤미아의 낙원, 카를로비바리> 21:30 한국기행 <잘먹겠습니다 김장 4부 산중 보물찾기>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인문학 버닝 - 거리의 철학자, 강신주>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 한국에 산다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24:10 스페이스 공감 1, 2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0일 (음 10월 11일 丙申)

子	48년생 학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60년생 내버려둬도 스스로 정리될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72년생 느슨해진다면 곤란할 것이니 바짝 잡아 당겨줘야 한다. 84년생 길고 긴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0, 55	午	42년생 정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54년생 느슨해진다면 곤란하게 될 것이니 단단히 매어 두어야 한다. 66년생 다수인과 만남의 기쁨이 클 것이다. 78년생 지속적이어야만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1, 18
丑	49년생 무관심 한다면 감퇴할 수밖에 없다. 61년생 인맥의 활용이 충분한 보수가 될 수 있다. 73년생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니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 85년생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도 있으니 땀 흘리고 차질 없이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02, 40	未	43년생 무리할 필요는 없는 법이니 자신의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다. 55년생 영리한 비밀이 없는 법이다. 67년생 미리 방책을 세워 두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79년생 만족할 만한 결과이다. 행운의 숫자 : 35, 51
寅	50년생 핵심 사항을 놓치지 않아야 대국을 조성할 수 있다. 62년생 뜻하는 바대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74년생 기본적인 관리에 충실해야 대사를 도모할 수 있다. 86년생 액면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68, 48	申	44년생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가능성이 크다. 56년생 한마음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느니라. 68년생 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까지 수정하라. 80년생 마음만으로는 아니 되니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자. 행운의 숫자 : 34, 17
卯	51년생 원래부터 타고난 료이 다르니 상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63년생 지나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75년생 방법법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크다. 87년생 상식적인 선에서 강구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행운의 숫자 : 84, 69	酉	45년생 학수고대 해오던 결과가 도출될 것이니라. 57년생 과거에 부담스러웠던 것이 더 나은 계기를 마련한다. 69년생 대단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중에서도 포기할지도 모른다. 81년생 복을 불러들이는 전조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8, 25
辰	40년생 지리 잡게 될 것이다. 52년생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 볼 필요가 있다. 64년생 머지않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 76년생 중박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88년생 의사 표시가 정확해야만 착오가 생기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87, 93	戌	46년생 마음에서 우리나라가 없다면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58년생 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70년생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이다. 82년생 돈 들어오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6, 22
巳	41년생 기준이 단순하다면 오류가 따른다. 53년생 귀를 막고 지내야만 마음이 편한 해지리라. 65년생 몇 가지가 겹치면서 혼선이 보인다. 77년생 불잡아 두는 것이 특이 되리라. 89년생 마음 먹고 있던 일을 처리하기에 적합하다. 행운의 숫자 : 89, 49	亥	47년생 파상적인 현상일 뿐이니 무시해도 된다. 59년생 지켜보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71년생 노력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국량이나라. 83년생 인화야말로 만사를 성사시키는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9, 7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